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윤희원**

<차 례>

0. 논의에 앞서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현황
2.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실태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사용 실태
4. (한)국어 교육 발전 과제와 전망

0. 논의에 앞서

최근 들어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과 새터민(북한 이주민)가정 자녀의 문제가 사회 통합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및 교육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아동 교육 문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사회 부적응, 한국어에 대한 숙달도 부

* 이 글은 줄고 2005, 2006, 2007, 2008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며, 제 41회 국어교육학회의 기초 발제 원고를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yoonhw@snu.ac.kr

족,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에게도 이러한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국어 교육에서도 이들을 인지한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교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모어가 아니면서, 국적 취득이나 출생과 동시에 “국어”가 되는, (한)국어¹⁾의 교육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히 한국어 교육의 각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어떤 해결 방안이 효과적인지 생각해보자.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 가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표 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형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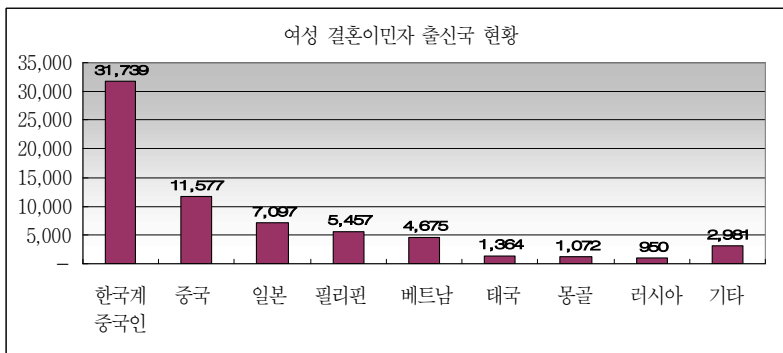
1)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외국어인 “한국어”일 수도 있고, 국적상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서의 한국어일 수도 있기에 필요에 따라서 “(한)국어”로 표기함.

위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 중 국제결혼 가정의 비율을 2005년 통계청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비율이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 '05년 13.6%로 증가하였다.

<표 2> 총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 및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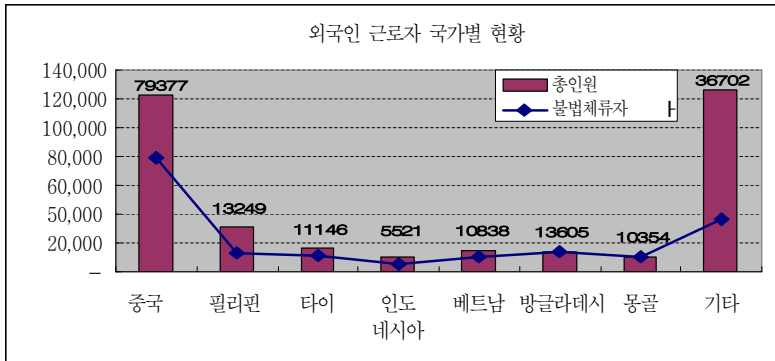
구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인원(명)	316,375	43,121	31,180	11,941
비율(%)	100	13.6	9.9	3.7

20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 3,122건으로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농어촌 지역만 살펴보면 전체 결혼의 35.9%²⁾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한국인 여성이 아닌 외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2006년 3월 통계청 자료.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45,679명이며, 이 중 합법체류자는 164,887명으로 47.7%에 해당하며 불법체류자는 180,792명으로 52.3%에 해당한다.³⁾ 불법체류자 규모는 2004년에 조사된 188,000명에 비해 약 7천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6년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일자리가 40만여 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35.4%로 가장 많으며, 필리핀이 9.0%, 타이이 4.8%, 베트남 4.3%, 방글라데시 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타 : 미국, 러시아, 일본 순임

이러한 현상은 자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제적인 현상이므로 앞으로 그 수의 증가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 않다.

새터민 가정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 다소 다른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의 저소득 문제 및 자녀의 학교 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2006년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연구한 다문화 이슈 페이지에 따르면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터민 가정의 31.7%가 무직이며, 취업에 성공했

3) 2005년 5월 법무부 자료.

다해도 업무의 대부분이 장치나 기계 조작 23.3%, 단순 노무자 10%로 나타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새터민 가정 가장의 취업 분야

구분	아버지	어머니
<u>단순노무 종사자</u>	6(10.0)	15(23.8)
농업, 임업, 어업숙련 종사자	0(0.0)	0(0.0)
<u>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u>	14(23.3)	2(3.1)
판매 종사자	4(6.7)	8(12.7)
준 전문가	0(0.0)	0(0.0)
사무종사자	2(3.3)	2(3.1)
전문가	0(0.0)	2(3.1)
의회의원, 고위임원 및 관리자	0(0.0)	0(0.0)
무직	19(31.7)	31(49.2)
기타(사망, 복에 거주)	15(25.0)	3(4.8)
계	60(100.0)	63(100.0)

이러한 가정 형편은 새터민 자녀가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 성적의 부진은 학교 중도 탈락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2.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실태

다문화 가정의 교육은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곧 아동의 한국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 고취는 자녀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는 곧 자녀의 정체

성 혼란이 야기되는 청소년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인 아버지 또한 부인의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편견 및 문화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자녀의 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만 해도 총 7,998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이 11.6%, 고등학생이 3.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인 6,6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⁴⁾

<표 4> 국제결혼 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시도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서울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756	148	77	981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485	94	30	609
부산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306	37	21	364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238	26	10	274
대구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158	22	10	190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42	14	4	160
인천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207	25	14	246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87	14	7	208
광주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118	8	7	133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04	7	5	116
대전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129	24	11	164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18	21	3	142
울산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75	15	5	9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70	12	4	86

4) 2005년 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자료.

시도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경기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1,454	338	60	1,852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108	220	36	1,364
강원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398	40	10	448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60	38	8	406
충북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331	23	6	360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14	19	2	335
충남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464	53	15	532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415	48	12	475
전북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679	45	11	73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675	45	11	731
전남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878	54	15	947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851	50	15	916
경북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432	40	13	48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413	32	9	454
경남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357	49	4	410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39	41	3	383
제주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53	3	0	56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5	1	0	36
계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6,795	924	279	7,998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5,854	682	159	6,695

(교육부, '06.3 기준, 단위 : 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 2세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언어 능력의 부족은 곧 학습부진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자녀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구어보다는 문어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⁵⁾

5)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둘째,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한다. 이는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의 결핍과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국제결혼한 가정의 어머니가 우려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 초등학교를 자녀로 둔 어느 중국 조선족 어머니

조선족은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문화도 저 문화도 아닌 조선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문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이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

둘째인 딸이기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요새 부쩍 엄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저런 것도 잘 못 가르쳐 준다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셋째도 요새 그러기 시작하고…….

이처럼 정체성의 혼란은 청소년기에 정서적 혼란, 부정적인 사고 형상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부적응 등으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셋째,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3,507명을 대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조사를 마치고 한 달 동안 세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생김새에서 드러나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교우관계는 좋았다. 그러나 세 학생 모두 매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세 학생 모두 당황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놀림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학력에 있어서는 일반 학생에 비해 꽤 큰 차이가 났다.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현저히 뒤쳐지고 있었다……. 하교 후 교실에 남겨 1시간씩 지도를 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학력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세 어린이의 집에 안내장을 보내어 어머니와 개별 상담을 하였다.” (전북 A초등학교 교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13.4%에 해당하는 학생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⁶⁾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인 13.4%와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집단 따돌림의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자란 자녀들도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현상인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의 경우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해서’(29.4%)인 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그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언어 문제로 소외를 당하거나 피부색 등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 충격은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조사 내용으로 보아 한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녀를 위한 생활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부모에 대한 교육과 이주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이 학교 및 다양한 민·관 단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의 경우, 그 자녀가 학교 교육 밖에 방치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개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조사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불법체류 포함) 중 취

6)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자료.

7) 만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만 발급받아 인근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입학해 수료 후 정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비록 청강생 신분으로나마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287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외국인 학교 재학생 7,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 유입 가능 인원은 약 9,500명으로 추산되지만, 국내 학교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하여 약 8,000여 명의 취학 아동이 학교 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동훈(2003)에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 표본 조사에 의하면,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학교 교육 안에 있는 1,500여 명의 아이들은 학교 적응양상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다. 국가인권위원회(2003)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언어 문제는 외국인 아동이 학교 교육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로 56%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낮은 성적이 16%, 따돌림, 구타, 교우 문제가 20%, 생활수준의 차이가 4%를 차지했다.

<표 5>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언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2003) 자료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50명)	(31명)	(19명)
• 미숙한 한국어	30.0	32.3	26.3
•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들	26.0	32.3	15.8
• 낮은 성적	16.0	3.2	36.8
• 따돌림, 놀림, 구타	12.0	16.1	5.3
• 친구 사귀기가 힘들	8.0	6.5	10.5
•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4.0	6.5	-
• 기타	24.0	29.0	15.8

(단위 : %)

또한 모국에 대한 긍지 상실의 현상도 나타나는데, 특히 외모로 외국인인 판단이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예. 몽골, 조선족)의 경우 한국 생

활에 적응해가면서 자신의 국적을 창피해하며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교육의 또 다른 문제는 나이와 맞지 않는 학년 배정을 들 수 있다. 학년 배정의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2~3살 어린 같은 반 한국학생에게 반말을 듣거나 성적이 낮게 나와 상처를 받기도 한다.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급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나이 어린 학급 동료와의 학교생활이 재미없어 장기적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새터민 자녀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이다.

<표 6> 새터민 자녀의 중도 탈락률,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최근 6년간 입학생 대비 중도탈락 현황(1999~2004)					
구분	초(6~12)	중(13~15)	고(16~20)	평생교육시설	계
입학생	283	136	76	6	501
중도탈락률(%)	3(1.1)	22(16.2)	11(14.5)	2(33.3)	38(7.6)
졸업생	86	31	35	2	154

1999년에서 2004년 3월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1.1%인데 반해,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6.2%, 고등학생은 14.5%에 이른다. 남한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학생 1.1~1.9%이고, 일반계 고등학생 1.1~1.7%, 실업계 고등학생 4.0~5.1%이다.⁸⁾ 이에 비해 새터민 중학생의 중도탈락률은 남한 학생의 8~15배이며, 새터민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남한 일반계 학생의 8~13배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3~4배에 달한다. 새터민 자녀들은 낮은 학교 성적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고,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말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질성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8)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 자료.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사용 실태

(1) 기초 지식이나 상식의 결핍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가 한국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의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 알아나가야 할 사회적 관습이나 예절 및 사회 제도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상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체통이 무슨 물건인지 모른다거나 학교에 올 때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풍부한 의사소통을 하였거나 독서를 충분히 하였다면 알고 있었을 만한 지식이나 상식이 결핍된 경우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수학이나 즐거운 생활보다 바른 생활의 학업 성취도가 더 낮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2) 논리적 사고 및 추상화 능력 부족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의 요구를 해결하거나 가벼운 친교 정도를 위한 언어생활에는 크게 어려운 어휘나 복잡한 문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한국어 능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기초 지식의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비계를 설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추상화하여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장화 신은 고양이'를 읽고 재미있었다고 느끼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고양이가 왜 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까?'라고 까닭을 물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주장에 대한 까닭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어진 글을 읽고 등장인물의 의견이나 주장을 정리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는 이해하면서도 이를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설명의 길이가 길어지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에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학업 성취도 저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수희는 자두를 6개 먹었습니다. 재환이는 수희가 먹은 자두의 3배를 먹었다면 재환이가 먹은 자두는 모두 몇 개입니까?'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 $6 \times 3 = 18$ '을 알고 있더라도 문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재환이와 수희가 먹은 자두의 개수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감각적 표현 및 직관의 차이

일상생활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비롯하여 꾸며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평소의 언어생활의 폭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표현이나 직관과 관련되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의사소통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풍부하고 성숙한 언어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금님이 _____ 웃었습니다.'에 맞는 의성어를 고르는 문제에서 '깔깔, 엉엉, 호호, 허허'같은 예를 보고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는 등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도 의성어나 의태어를 고를 때 난감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꾸며주는 말을 고르는 상황에서도 '_____ 호랑이'

나 ‘_____ 왕자’ 같은 빈칸에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적절한 꾸며주는 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풍부하고 다채로운 언어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선택하는 표현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독창적이기보다는 어색하고 이상한 발상을 담은 글이 되기도 한다.

4. (한)국어 교육 발전 과제와 전망

(한)국어 교육의 현실적 문제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와 (한)국어 교육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대별된다. 전자는 학습자의 모어와의 차이점, 언어사용의 사회학적 차이, 언어로 표현된 문화를 포함한 한국 문화 전반의 문제, 한자 혹은 어문 규정에 관련된 사항 등과 같이 한국의 말과 글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후자는 국가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라든가 정치·외교적인 조건 또는 국제 사회의 변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동 및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그리고 (한)국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더라도 (한)국어 교육의 계획과 실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방향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어의 수요와 교육 실천에 바탕을 둔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언제나 문제이자 과제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는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단기적으로 혹은 현실적인 처방으로 시급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각종 자원을 동원하고 투입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요구(needs)와 욕구(wants)를 조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지 (한)국어를 배워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 막연히 결정한 ‘회화 중심’ — ‘독해 중심’, ‘생활 중심’ — ‘학업 중심’ 등의 지향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에 그치고 말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심의·검정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제작, 유통,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어휘 사전류, (한)국어 교과서류, (한)국어 학습용 시청각 자료 및 비디오와 CD-ROM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 음식, 풍습 등)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옥석을 가려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하여 ‘봉사’ 차원의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을 차별화하여야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한)국어의 교육에 대해서 의욕과 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은 현재 국학 관련 전공자나 외국어 교육 전공자 가운데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을 활용하면 비교적 단기간의 연구로도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회 구성원의 변화는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못지않게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 주었다. 더불어 모어로서의 국어의 지평 또한 넓혀 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교사와 국어 교사가 다양한 계획과 실천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에 대한 처방으로 몇 가지 시급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교재와 교수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나라마다 교육과정도 다르고, 각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만한 교수법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조언어학적 차이점을 반영하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재 개발 원리가 연구된다면 각 나라와 대학 기관의 성격에 맞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반드시 외국인일 필요도 없지만 외국인만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에까지 그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상장치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통합장치,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무엇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 자녀의 인식 전환을 위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하는 교육과정의 도입과 이의 실현을 위한 지침서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양성과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은 현장에서 교사의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및 생활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이에 덧붙일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배경이라는 점이다. 행정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지원이 기가 막힌 수준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완벽한 교사와 학자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과 교육 자료를 연구 개발-보급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다른 부문이 높이와 깊이를 잃는다면 (한)국어 교육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한)국어 교육도 결코 하루아침에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끼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는, 이미 밝혀진 문제라 하더라도 단시간 안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해결 과제를 상당히 잘 알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교육계와 학계뿐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보이는 관심과 노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미루거나 막연히 기대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

의 (한)국어 교육 관련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의외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본 논문은 2009. 2. 28. 투고되었으며, 2009. 3.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3.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 손호민(2005), 「세계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I』, 한국문화사.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 (3), 한국교육개발원.
- 유석훈(2005), 「국내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I』, 한국문화사.
- 윤희원(2006), 한국어 교수-학습론, 『한국어교육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윤희원 외(2007),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교육,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윤희원 외(2008),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 37호
- 조항록(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사」, 『한국어교육론 I』, 한국문화사.
-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 Morse, A.(2005), *A look at immigrant youth :prospects and promising practices*, Children’s policy initiative : A collaborative project on children and family issue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 [http : //www.statcan.ca/english/freepub/81-004-XIE/200410/immhi.htm](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1-004-XIE/200410/immhi.htm)
- Education matters :Children of immigrants :how well do they do in school?*,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umber81-004-XIE.
- Beavers, L. & D’Amico, J.(2005),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U.S. and State-level findings from the 2000 Census*,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and th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http : //www.humanite.fr/journal/2005-04-06/2005-04-06-459786](http://www.humanite.fr/journal/2005-04-06/2005-04-06-459786)
- Assemblée parlementaire(2003), *La situation des jeunes migrants en Europe*, Doc. 9645.
- [http : //www.chez.com/accueilenfantsmigrants/adresses-utiles.htm](http://www.chez.com/accueilenfantsmigrants/adresses-utiles.htm)
- L’accueil des enfants de migrants : Adresses utiles.
- Pratique langagières des snfants d’immgrés dans leurs familles*,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sur la planification linguistique, université Paris V.
- Silberman, R.(2004), *Le devenir des enfants de familles defavorisees en France*, Carré des Sciences.
- Vidal, D. & Bourtel, K.(2005), *Enfants d’immigrés, enfants discriminés*.

<초록>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윤희원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을 말하는데 이들 가정은 사회 부적응, 한국어에 대한 숙달도 부족,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격차 등에서 비롯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 정체성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및 문화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 등의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 사용 실태를 통해 분석해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기초 지식이나 상식이 결핍되어 있고 논리적 사고 및 추상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감각적 표현이나 직관적 판단이 한국인의 보편적인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먼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요구(needs)와 욕구(wants)를 조사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심의·검정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봉사’와 ‘전문적인’ 교육을 구별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실적인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한)국어 교육의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하지 말고 다문화 가정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양성과 현장 교사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교육계와 학계, 사회 각층이 함께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문제의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Yoon, Hi-won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e intermarriage families, foreign workers' families and "sae tomin(North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They have home problems, educational problems and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social maladjustment, Korean language competence issu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culture and their native culture.

Foreign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e effects their children's Korean language competences, cultural achievements, and identities. Therefore, we should understand foreign parents' native culture and also need to be interest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s well as needing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urthermore, we should overcome stereotypes and better understand cultural divers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Due to their low Korean language competence, children of intermarriage families suffer from poor progress in their studies, identity confusion, and bully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Korean language use,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a dearth of basic knowledge and common sense as well as not being able to think logically or critically when they study. Moreover, they have some trouble in academic achievement because they cannot express and judge in different ways from general Korean people.

For the plan and practi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e must first survey 'needs' and 'wa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econd, we must create deliber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s. Last we need to cultivate people of talent who qualify themselves for specialities that

differ from volunteer activities. To meet these needs, teaching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after due consideration of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from foreign students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earcher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to develop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ithin the framework of what it means to be :“Korea”, people of all social strata, including those in education and research fields should continue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language competence, academic competence